



무등산 국립공원의 지난해 탄소중립주간 행사에서 학생과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페 플라스틱(병뚜껑)을 활용해 만든 키링. <다도해 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굿즈 '남생이', 월출산 국립공원에 있어요

탐방안내소에 '숍' 오픈 40종 판매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국립공원 굿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월출산 탐방안내소(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43)내에 '국립공원숍'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월출산 국립공원숍은 국립공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업 '숲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전국 4번째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국립공원 인기 캐릭터 40여종, 월출산 깃대종인 남생이를 활용한 굿즈 4종(씨름하는 남생이, 잠옷 입은 남생이, 남생이 그림책, 남생이 에코백)을 만나볼 수 있다. 오픈 행사로 해시태그로 '#월출산국립공원', '#국립공원숍'을 달아 SNS로 방문을 인증한 이



SNS로 월출산 국립공원숍 방문 인증을 남기면 제공하는 다뚜기 가방걸이 기념품 <월출산 국립공원 인스타그램 캡처>

고객에게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다뚜기 가방걸이+매지세트)을 제공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9월 2일-8일)을 맞아 광주·전남의 국립공원들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탄소 흡수원의 주체로서 국립공원 보전 인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탐방객들은 탄소 흡수 식물 키우기, 페플라스틱 재활용한 키링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경험해볼 수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 지키고!'를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는 '나뭇잎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관찰하고 만져보며 미래에도 푸른 나뭇잎을 만나기 위한 탄소저감의 중요성을 배우는 '나뭇잎 forever' 프로그램이 열린다. 탐방원내 광주호 호수생태원 인근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탈취제와 식물화분 만들기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체험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9월 2~8일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 무등산·다도해국립공원 체험·캠페인

별도의 예약없이 참여 가능하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서도 각종 체험행사가 열린다. 9월 2일부터 8일까지 탐방 안내소 곳곳을 살펴보고 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커피박 점토를 활용해 화분을 만들어 탄소흡수 식물을 키워보거나 지리산 국립공원의 4계(季)를 담은 사진전을 구경해볼 수 있다. 7일에는 천은사 상생의길 걷기 및 줄기(쓰레기 줄기)행사가 열린다. 오전 10시 행사장에 집결한 후 탐방로와 계곡 등 지리산 국립공원 곳곳을 걸으며 1시간 30분간 탄소중립 걷기와 줄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참여를 희망하는 탐방객들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도해 국립공원에서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9월 2일 휴관)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캠페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재활용 및 생활용 공방에서는 페플라스틱(병뚜껑)을 활용한 깃대종 키링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다도해 국립공원의 깃대종은 풍란과 상괭이다. 또 커피박 점토로 천연 탈취제 키링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탄소중립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 확산 캠페인이 동시에 운영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을 시작으로 9월 첫째 주를 탄소중립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환경보호 관심... '낮취요 프로젝트' 콘서트

9월 7일 동구 미로센터

광주시 동구가 지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콘서트를 개최한다. 동구는 다음달 7일 오전 11시 미로센터 1층 주차장에서 기후환경 콘서트 '낮취요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로 공연예술프로그램 '시티즌 5월' 일환으로 마련된 '낮취요 프로젝트'는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UN 지정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활용으로 꾸민 무대와 악기를 활용,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관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특히 히비스밴드(하와이안 뮤직 그룹), 여려날 밴드(포크그룹), 올라(퓨전국악그룹), 이광배(싱어송라이터), 한중면(싱어송라이터), 주하주(싱어송라이터), 김국주(반도네온연주자), 장혜란(피아니스트), 프롤로그(포크락 그룹) 등 뮤지션 9팀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미로센터 알림 사함을 통해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시티즌 5월을 총괄 기획한 박성연 음악감독은 "이번 '낮취요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기를 직면할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구의 온도를 낮춰 돌려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낮취요 프로젝트" 공연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동구가 앞장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청년주간 친환경 가치소비마켓 광주시, 9월13일까지 참여자 모집

광주시가 청년주간을 맞아 친환경 가치소비마켓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청년돌파, 오늘도 레벨업'을 주제로 9월 13일까지 가치소비마켓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에서 활동하며 비건, 친환경, 에코, 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가치를 홍보하는 청년단체와 활동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개 팀에 한해 선착순 모집 받는다. 마켓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열리며 1개 단체(개인)당 1개만 지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스와 일체형 테이블 1개, 의자 2개가 제공되며 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외 다른 세부 자료는 참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최종 발표는 9월 셋째주에 이뤄지며 개별적으로 결과가 전달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구, 위기 청소년 생계·학업·건강 챙긴다

위기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광주시 남구가 위기가정 청소년들의 지원에 팔을 걷어부친다. 남구는 부모의 건강 약화와 이혼,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계유지를 비롯해 학업 지원,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대상은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중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22명이다. 가정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역경을 딛고서라도 기술 습득에 열중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다. 또 가정폭력의 상흔으로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거나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더러 포함됐으며, 부모 없이 공적부조만으로 세 남매가 빠

듯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나서고자 하는 옛된 학교 밖 청소년도 있다. 남구는 심의 대상 청소년의 가정 소득 수준이 낮은 데다 몇몇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심의 대상에 오른 위기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 5000여만원을 투입해 위기 청소년의 처한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를 비롯해 학업 비용과 자립지원비, 상담 및 심리 검사비, 활동 및 기타 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는 청소년 1명당 매월 65만 이내에서 지원하고, 학업 및 상담 치료와 자립지원비 등은 매월 30~36만원 사이에서 지급해 관내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미등록 생물 12종 발견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기후변화 지표종을 포함한 미등록 생물 12종이 새롭게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생물다양성 자체조사를 통해 지리산 국립공원 내 미기록 생물 12종을 신규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발견 생물 12종 중 식물은 9종(살비녀골풀, 가는흰사초, 구내풀, 나래사초, 애기염주사초, 무늬사초, 용단사초, 화살사초, 흰사초), 곤충은 3종(푸른아시아실잠자리, 큰청실잠자리, 하나잠자리)이다. 이중 구레에서 발견된 생물은 10종이고 나머지 2개 종은 각각 경남 산청 사무소에서 살비녀골풀, 하동 사무소에서 애기염주사초가 발견됐다. 국립공원측은 기존 조사기간을 확대하면서 관찰 시기가 짧아 확인할 수 없었던 생물들도 확인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사무소는 이번 신규종 발견이 생물 다양성 증가와 함께 살비녀골풀, 푸른아시아실잠자리 등 환경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을 통해 기후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리산 국립공원은 2021년까지 총 4차례 공원자원조사를 시행해 지난해 기준 3147종의 식물과 5157종의 곤충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푸른아시아실잠자리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